

마리오네트의
줄을
끊어라



마리오네트의 줄을 끊어라

이 책자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리오네트의 줄을 끊어라

화창한 주말입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많은 노동자들은 일터에 있겠지요. 지금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인간다운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을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러면 모든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과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께 던지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친구야 괜찮아? 울컥]이 그것이었습니다. 짧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함께 생각해 보자는 제안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지 못 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고 말씀해 주기도 하였고,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이야기하니 좋았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찌야 하는데?”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뭔데?”

“남자도 힘들어.”

우리가 던졌던 질문들에서 보다 구체화된 실체를 드러내 주길 원하였고,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좀 더 많은 토의를 진행하고 긴 시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개인

의 노력과 선택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의 구조는 마치 마리오네트(줄을 달아 위에서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의 줄처럼 우리를 묶아매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 차별을 정당화시켜 노동자들을 하향평준화하는 구조, 장시간 노동으로 아이에게서 부모를 빼앗아 가는 구조, 시민과 시민으로의 만남이 아닌 갑과 을로 관계 맺는 구조, 노동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구조, 비정규직을 선택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구조, 그 줄을 끊어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를 둘러싼 것들을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함께여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제안 드리는 내용들은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의 기본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회,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22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위원회

익자, 명숙, 재민, 태임, 지아, 진경, 상아, 유진, 명희, 지현, 현정, 수영, 드림

제 1 장

차별의 경제학



차례

05 제 1 장 차별의 경제학

- 10 1. 같은 일, 다른 임금
- 15 2.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는 차별
- 19 3. 인격권과 존엄권을 짓밟는 직장 내 괴롭힘
- 23 4. 돌봄 받지 못 하는 돌봄노동
- 29 5. 여성의 일타는 영세사업장

33 제 2 장 일하는 엄마, 슈퍼우먼이 되어라

- 39 1. 정시 출근, 정시 퇴근
- 42 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당신의 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45 제 3 장 구조를 바꾸는 국가의 개입

- 50 1.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처럼 버려지는 비정규직
- 57 2. 24시간 소비 뒤의 24시간 노동자
- 61 3. 소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65 제 4 장 인권으로서의 노동권

- 69 1. 노동, 노동자, 노동기본권
- 73 2. '갑'과 '을'을 넘어 '시민'과 '시민'으로
- 78 3. 노동인권교육은 어릴 때부터